

아기 숲과 아기 수달이 들려주는 한강이야기여행

위치

한강이야기전시관(독섬 자벌레) 1층

관람시간

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20:00

*매주 월,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

단체관람

단체(20인 이상) 관람객에 한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관람문의

02-3780-0517

홈페이지 SNS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기획·개발	이재림 김미진
디자인제작	삼십칠도커뮤니케이션
일러스트	매송
발행일	2024. 12.
발행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04770) 서울시 강동구 강변북로 257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시 한강이야기전시관에 있으며, 무단 도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

아기 숲과 아기 수달이 들려주는 한강이야기여행

전시활동지-어린이용



한강이야기전시관
Hangang Story Gallery

한강의 수호자, 아기 삶과 아기 수달

아기 삶과 아기 수달은 한강을 지키는 용감한 수호자예요!

하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고 한강이 변하면서, 동물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걱정이 된 두 친구는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따라 숨은 비밀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모험을 시작했어요. 이 모험에서 두 친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기 삶

한강에 사는 아기 삶은 세상일에 호기심이 많아 항상 귀를 쫑긋거리요. 나무타기 선수이자 고양이와는 달리 해엄치기도 좋아해요! 겉보기에는 까칠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랍니다. 그리고 췌! 아기 삶은 사실 겁쟁이래요!



아기 수달

아기 수달은 한강에서 수영하고 잠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길게 난 수영은 물고기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의욕이 넘치며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빨리 등장하는 해결사랍니다. 단짝 친구인 아기 삶과 함께 한강을 지키는 용감한 친구예요.



관람예절 함께하는 약속

어린이 약속해요

- 1 전시관에서는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 2 전시관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 3 체험 전시물을 소중히 다뤄요.



보호자 알려주세요

- 1 어린이와 늘 함께해주세요.
- 2 활동지에는 한강이야기를 알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3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한강, 오천 년 이야기 속으로

아기 숲과 아기 수달과 함께 한강을 따라 모험을 떠나볼까요? 한강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여행의 출발점이에요!

한강의 역사

- 1 **한강과 함께한 긴 세월, 가까운 이야기**
시대별 한강의 역사 속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2 **특별전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활력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강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 3 **한강의 섬 이야기**
한강의 섬들이 품은 역사적인 모습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한강의 문화

- 4 **미디어 한강**
한강의 지리, 역사, 전문가 인터뷰 등 3개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한강의 가치와 아름다움, 의미를 경험할 수 있어요.

- 5 **플레이 한강**
겸재 정선의 그림 속 한강에 담긴 이야기, 한강의 생태를 주제로 한 게임, 한강과 관련된 음악 감상 등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간입니다.

- 6 **아카이브 한강**
한강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을 정리해 놓은 전시물을 통해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편의시설

- 여자화장실
- 남자화장실
- 수유실
- 엘레베이터



1 처음 만나는 한강. 선사시대로 풍덩!

한강을 따라 놀던 아기 숲과 수달은 반짝이는 조각을 발견해요.

조각을 만지는 순간, 둘은 선사시대 한강 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시관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도구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ㄷ ㅈ ㄱ



ㄱ ㅁ ㅈ



ㄱ ㄹ ㅂ ㅋ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남은 자원을 어떻게 보관했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살았어요. 먹을 것을 보관하기 위해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지요. 밀이 보족한 빗살무늬 토기는 모래나 흙에 꽂아두기 편했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조개껍데기나 갈대를 이용하여 아름답게 꾸몄답니다.



라인을 따라 토기를 완성하고,
물건을 담아 보아요.



2

한강을 둘러싼 세 나라. 삼국시대

한강 주변은 삼국시대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가 치열하게 충돌했던 곳이거든요.
한강을 차지한 첫 번째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한강의 첫 주인이 되다

풍납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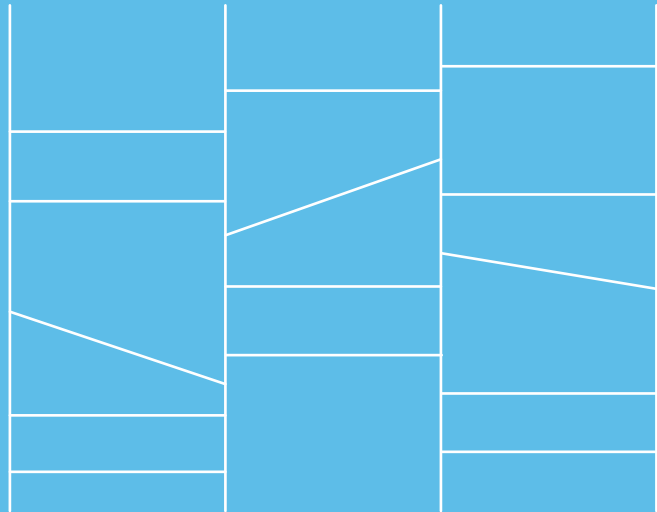
몽촌토성



온조



석촌동고분군



적의 침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언덕에 흙을 다져 쌓은 성	한강 옆 평지에 흙과 모래를 층층이 다져 쌓아 올린 백제의 왕성	백제의 옛무덤이 모여 있는 곳, 기와와 장신구 등 귀중한 유물이 발견 된 곳	한강 물레에 자리를 잡고 백제를 세운 첫 번째 왕의 이름
-----------------------------------	-------------------------------------	--	---------------------------------

3

배가 오가던 길. 한강의 나루 이야기

한강에 다리가 없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강을 건넌을까요? 한강의 남북을 이어주는 나루터는 조선시대 경강상인의 활발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상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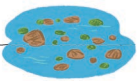


돌아온 섬들, 한강의 밤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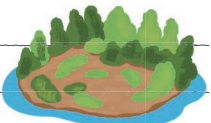
한강에는 몇 개의 섬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을 걸쳐 한강의 섬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했어요.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한강 섬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밤섬”의 역사

① 밤섬은 밤알을 까놓은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1960년대 여의도 개발을 목적으로 폭파되어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② 놀랍게도 물살이 날라준 모래와 펄이 쌓이고, 다양한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운 결과 밤섬은 저절로 모습을 회복해서 숲을 이루었습니다.



③ 현재 천연기념물인 원앙, 솔부엉이, 황조롱이와 멸종위기 동물인 참매, 흰꼬리수리 등이 살며 매년 철새 5,000여 마리가 찾아옵니다.

④ 밤섬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로 지정되어 한강 생태계에 중요한 섬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 잠실어도

잠실한강공원에는 물고기들이 강을 따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길이 있어요. <잠실어도>는 물살이 센 곳에서도 작고 약한 물고기들이 한강 위아래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든 통로랍니다. 잠실어도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주둥이가 돌고래처럼 튀어나와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가시납지리



눈동자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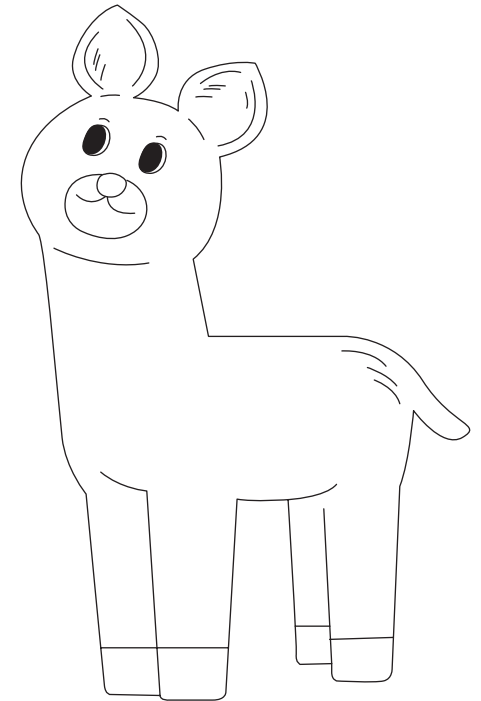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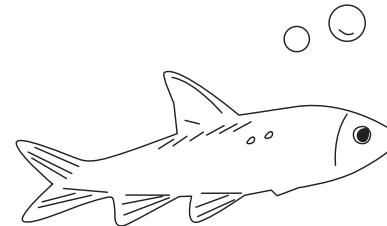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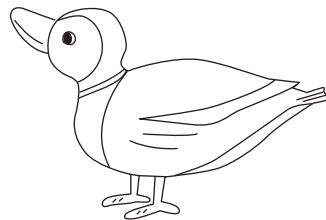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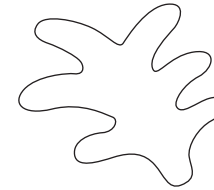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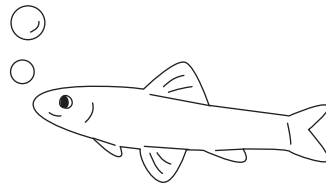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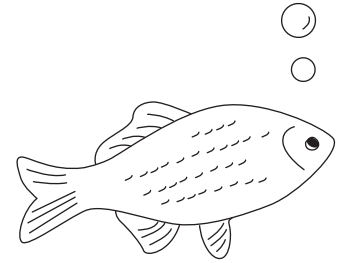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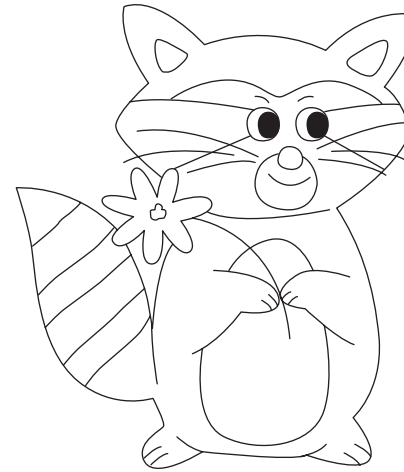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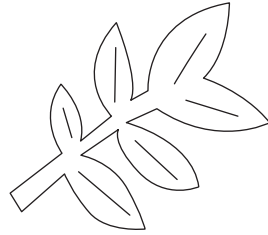
몸길이 8-10cm로 아주 작고, 가늘고 길며 등은 진한 녹색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요!

다음 중 잠실어도에서 서식하는 친구가 아닌 것은?





아기 삶과 수달,
친구들을 색칠해보아요!



아기 숲과 아기 수달과 함께한 한강이야기여행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만의 색으로 한강공원을 표현해보세요.
모두가 함께 한강을 사랑하고 지키는 멋진 수호자가 될 수 있어요!

